

# 소우 후지모토 건축과 베르나르 추미의 건축에 나타난 사이공간 (In-between space)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of in-between space in Sou Fujimoto and Bernard Tschumi's Architecture

**Author** 박호현 Park, Hohyun/ 정희원, 국립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Aldo Van Eyck and Herman Hertzberger explained 'In-between space' as an intermediate space between opposite elements such as whole and parts, inside and outside, open and close, central and decentral. From this idea, the meaning of 'in-between space' has developed and applied to works of Bernard Tschumi and Sou Fujimoto.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in-between space' was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wo architects' works to reveal the design approach in terms of 'in-between space' Final Wooden House, N House, and Serpentine Gallery Pavilion among Sou Fujimoto's work were selected and Le Fresnoy, Lerner Student Center, and Acropolis Museum among Bernard Tschumi's work were selected to analyze. To understand their design approach, their work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rchitectural attitude, tools, construction style and the approach, concept, theme, relation, direction of in-between space. As a result, Sou Fujimoto uses 'in-between space' as a nebulous approach as intermediate space between opposite elements. For Bernard Tschumi, 'in-between space' is also an intermediate space to emphasize and make a tension between opposite elements. It is a method of solving the contradiction condition between old city environment and new architecture.

**Keywords** 사이공간, 매개공간, 모호함, 중재성, 소우 후지모토, 베르나르 추미  
In between Space, Intermediate Space, Nebulous, Mediation, Sou Fujimoto, Bernard Tschumi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소우 후지모토(1971-)는 일본현대건축에 있어 새로운 담론을 이끌고 있는 젊은 건축가이다. 실험적이면서도 명쾌한 건축적 개념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런던 서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온을 설계하는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는데 있어 건축의 근원적 문제부터 출발하여 미래의 숲으로서의 건축으로 정의하고 장소로서의 건축, 부자유함의 건축, 형태가 없는 건축, 부분의 건축, 사이의 건축의 5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sup>1)</sup> 그는 자신의 건축개념을 이론적으로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품으로 선명하고 명쾌하게 구현하고 있다. 베르나르 추미(1944-)는 스위스의 건축가, 건축 이론가로서 해체주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으며 맨하튼 트랜스크립트(the Manhattan Transcripts), 건축과 분열(Architecture and Disjunction), 이벤트 도시(Event City)등 다수의 저

서를 통해 건축 개념을 서술하고 건축가로서 라빌레뜨 공원 파빌리온에서부터 아크로폴리스 미술관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이다. 두 건축가는 세대와 지역도 다르고 건축 스타일도 상이하지만 사이공간(in between space)에 대한 건축적 접근에 있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사이공간에 대한 두 건축가의 접근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작품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건축가의 작품에 드러난 사이공간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적 성향과 건축적 개념 및 구축에 대한 접근방식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사이공간에 대한 두 건축가의 개념과 구축의 방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 사이공간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3장에서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1) 소우 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p.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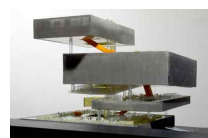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소우 후지모토의 경우 사이공간 개념이 명확히 드러난 작품으로 2006년 작품인 파이널 우든 하우스, 2008년 작품인 N하우스 및 2013년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을 선정하였다. 베르나르 추미의 경우 다양한 건축이론을 저술 하였고 작품 또한 다양한데 그의 주요 개념은 공간(Space), 행위(Events), 시퀀스(Sequence)의 관계로 이루어진 ‘스크린 플레이(Screen Play)’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저서이자 작품집인 ‘행위의(에) 건축(Architecture in/of Motion)’과 르 프레스누아 안/사이에서의 건축(Le Fresnoy Architecture In/Between)에 드러난 사이공간의 개념과 1997년 작품인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미술 스튜디오, 1999년 작품인 컬럼비아대학 러너학생센터 및 2009년의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장에서는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 개념과 전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건축적 성향과 디자인 도구 및 구축 방법을 분석하고 사이공간 개념을 접근 방식, 개념, 관심주제, 관계성, 방향성으로 분석해 보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사이공간의 이론적 배경

호세 모랄레스(Jose Morales)는 사이공간에 대해 “건축에서 ‘사이’는 무엇을 중재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관계와 접촉의 건축이다. 그것은 개방된 시스템의 도시이며 경계도 없고 구분도 없으며 대지의 현상학에 열려있는 건축이다.”라고 설명한다.<sup>2)</sup> 즉, 사이공간은 두 개 이상 공간의 경계에 존재하며 접촉, 연결, 단절 등 그 공간들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이다.

네덜란드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는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에게서 “in-between”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건축에 도입 시키면서 경계에 대한 근대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에게 경계는 면의로서의 표피가 아니라 영역의 개념을 내포한 3차원적인 것이다.<sup>3)</sup>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공간 개념은 부분과 전체, 내부와 외부, 닫힘과 열림, 중심과 탈중심 등과 같은 대립 항들의 동시적 공존을 통해, 주체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장소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4)</sup>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in-between은 서로 다른 영역적 요구를 지닌 영역들 사이의 예리한 구분을 삭제하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관리적 차

원에서 사적 혹은 공적 범위에 속 할지 모르지만, 평등하게 양측에 진입할 수 있는 매개공간을 창조 하여야 한다.”<sup>5)</sup>고 했다. 이처럼 알도 반 아이크와 헤르만 헤르츠버거에게 대립적 요소들 사이의 매개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사이공간 개념은 루이스 칸에게 있어 외부-내부 공간(outside-inside space)으로 나타나는데 머무름의 의미와 이동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건축에서 경계공간으로 구체화된다. 경계공간이란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 놓이는 연결지점이면서 채움을 기다리는 공간이다.<sup>6)</sup> 램 콜하스에게 있어서는 프로그램화된 수평적 레이어의 수직적 관계에서 사이공간이 드러나는데 시애틀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매스는 분절되고 그 사이공간은 도시적 보이드로 서로 중첩되고 복합되는데 외피에 의해 내부의 활동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내며, 각각의 프로그램 레이어와 사이공간을 통합한다.<sup>7)</sup> 카즈요 세지마는 ‘행위와 장소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방들이나 공간들 사이의 관계나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같은 물리적인 관계뿐 아니라 더 깊은 지각적 심리적 현상까지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있다.<sup>8)</sup>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대해 세지마는 “하나의 장소에 서로 다른 수많은 기능들이 함께 모일 때, 궁극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상호교환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교류는 단일하고 경직된 기능들이 갖고 있는 건물에서 일어날 수 없다. 우리의 제안에서 보이는 환모양의 산책은 연속적으로 카페, 전시 공간 등으로 이어진다. 건물의 경계를 원형으로 정하면서 모든 행위사이의 관계, 건물의 모든 측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sup>9)</sup>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이공간은 칸에게는 경계공간이면서 연결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콜하스와 세지마에게는 프로그램들 간의 관계 또는 프로그램과 외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공간이다.



a) 시애틀 도서관 모형



b) 21세기 미술관 모형

<그림 1> 시애틀 도서관과 21세기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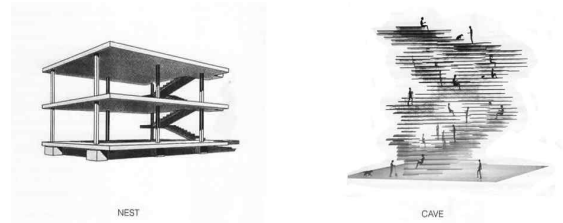
2) Manuel Gausa, Vincent Guallart, Willy Muller, Federico Soriano, Fernando Porras, Jose Morales,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p.334  
3) 김명화,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p.9  
4) 오광석, 안용희, 전영훈,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17 n1, 2008, p.24

5) 헤르만 헤르츠버거,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2009, p.40  
6) 김명화,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p.8  
7) 권경민, 김종진, 램 콜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16 n6, 2007, p.32  
8) 송정화, 임채진, 세즈마 카즈요의 ‘21세기 미술관’에 표현된 공간형식과 프로그램,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13, 2005, p.72  
9) 김명화,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pp.30-3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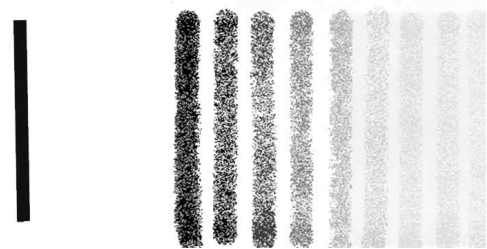
### 3. 소우 후지모토와 베르나르 추미 건축의 사이공간

#### 3.1. 소우 후지모토 건축의 사이공간(in between space): 모호성

소우 후지모토는 “건축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며 공간과 공간의 관계성, 공간과 주변의 관계성에 의해 존재하고 무언가와 무언가를 연결하는 ‘사이’가 건축이다.”<sup>10)</sup>라고 주장한다. 소우 후지모토의 건축적 어휘인 각도변화(Angle), 층의 중첩(Layering), 밀어내기(Shift) 중 중첩과 밀어내기<sup>11)</sup>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건축 전략 이전에 동지(Nest)와 동굴(Cave), 0과1사이(between 0 and 1)<sup>12)</sup>같은 개념을 통해 건축에 대한 사고를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림1>의 다이어그램은 소우 후지모토의 대표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슬라브와 기둥에 의해 층이 형성되는 모더니즘 건축을 동지(Nest)에 비유하고 층의 개념이 불분명한 관계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는 건축을 동굴(Cave)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그림2>의 다이어그램은 0과1(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 공간이 아닌 0과1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함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사이공간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주는 다이어그램이다.<sup>14)</sup> 동지와 동굴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경계가 아닌 흐릿한 경계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는 모더니즘과 대비되는 자신의 건축을 원시적인 거주 형태인 동굴에서 찾으며 벽, 바닥, 천정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간이 미래의 건축 공간이라는 의미로 원시적 미래(Primitive Future)로 명명했다. 르코르뷔지에의 도미노 시스템<sup>?</sup>에 대비하여 반(反) 도미노 시스템으로 프리머티브 퓨처 하우스를 제안하였고 “프리머티브 퓨처 하우스에는 르코르뷔지에를 통해 명확하게 분리되어 정의된 것들 전부 모호함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모호함 속에 녹아들었다는 것이 흐릿명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다양한 장소가 새롭게 탄생해 어떤 종류의 풍부함이 생겨난다.”<sup>15)</sup>고 설명한다. ‘모호함’을 건축의 목표로 삼고 경계와 사이에 있어 ‘모호함’을 통해 생성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것이 그의 건축이다. 소우 후지모토의 대답함은 현대 건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르코르뷔지에의 도미노 이론에 대항하는 본인의 ‘모호함’의 이론을 미래의 건축이라고 주장하고 이 아이디어를



<그림 2> 동지(Nest)와 동굴(Cave) 다이어그램



<그림 3> 0과1 사이 다이어그램

구체화 시킨다는 것이다. 건축이론가 타로 이가라시는 “소우 후지모토와 준야 이시가미, 아키히사 히라타같은 70년대 생인 일본건축가들의 특징을 이전 세대인 아플리에 바우-와우 나 미칸같은 건축가들과 구분하면서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대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설명하기보다는 새로운 건축의 원칙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빛(자연)이 보여지는 방식 같은 특정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강한 관심을 갖는다.”<sup>16)</sup>고 설명한다.

#### (1) 파이널 우든 하우스

프리머티브 퓨처 하우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공간인 훗카이도 아틀리에로 발전하였고 이 개념이 구체화된 프로젝트가 파이널 우든 하우스였다. 목조 방갈로로서 2005년 목조방갈로 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쳐 구마모토현 구마무라에 2006년 완성되었다. 가로세로 35센티미터인 삼나무 목재를 쌓아올려서 건축과 가구 사이의 ‘잃어버린 스케일’에 주목한 작품으로 앞서 살펴본 동굴(Cave)다이어그램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층의 개념이 사라지고 장소, 위치, 신체의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 공간이 정의된다. “기능이나 장소는 ‘간격’의 상대적인 관계성에 의해 서서히 그 의미를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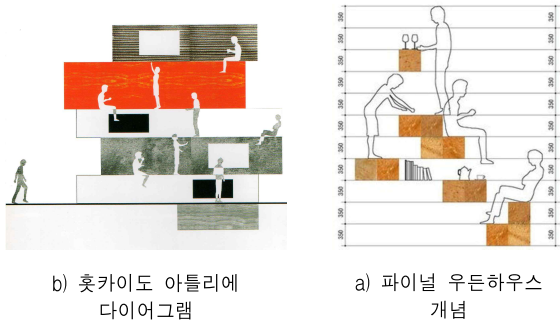
a)파이널 우든 하우스 외부

b)파이널 우든 하우스내부

<그림 4> 파이널 우든 하우스

10) 소우 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13  
 11) 이진화, 김성욱, 전유창, ‘소우 후지모토의 작품에 나타난 경계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논문집 v33 n1, 2013, p.122  
 12) 소우후지모토, Primitive Future, INAX, 2008, p.23  
 13) 앞의 책, pp.22-23  
 14) 앞의 책, pp.36-37  
 15) 소우 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202

16) 타로 이가라시, 직각이 없는 기하학, Primitive Future, INAX, 2008, p.16



<그림 5> 파이널 우든 하우스와 핫카이드 아틀리에 다이어그램

한다. 이는 건축과 가구 사이의 새로운 스케일인 동시에, 사이(=간격)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통해 드러났다 사라지는 투명한 틈과 같다.”<sup>17)</sup>고 설명한다. 소우 후지모토는 이 작품을 건축이전의 원형적 공간<sup>18)</sup>이라 칭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세분화되기 이전, 혼연일체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자 했다.”<sup>19)</sup>고 설명한다. 수평적인 층의 개념을 파괴하고 사이와 관계에 의해 정의하는 개념은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방법론인데 2012년 동경에 지어진 하우스 NA(House NA)로 이어진다.

(2) N하우스

오이타시에 2008년 완성된 N하우스는 ‘도시와 주택 사이’의 공간에 주목한 작품이다. 3개의 박스가 중첩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가장 외부의 박스와 그 다음 박스의 사이공간을 도시(공공)공간과 주택(개인)공간의 사이 영역으로 접근한 것이다. 일반적인 도시주택에서 도로(도시)와 현관(주택)이 문 또는 벽 하나로 양분되는 즉 0과 1사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계라면 N하우스에서는 통상 정원이라 인지되는 사이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반외부 반내부의 사이공간으로 정의한 것이다. 소우 후지모토는 “집과 도시사이에서 벽 한 장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의 그라데이션이 중첩되어 있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리에서 집이라는 영역의 농도 속을 서서히 헤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산다는 건 자신의 장소와 도시 사이의 다양한 거리를 의식하고 선택해 그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sup>20)</sup>라고 설명한다. N하우스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0과1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공공간과 개인공간을 디지털적인 0과1로 구분해온 서구적 관점에 반해 0과1 사이에 무수한 변환과정을 거치는 동양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 소우 후지모토는 “건축은 내부를 만드는 것도, 외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모호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건축이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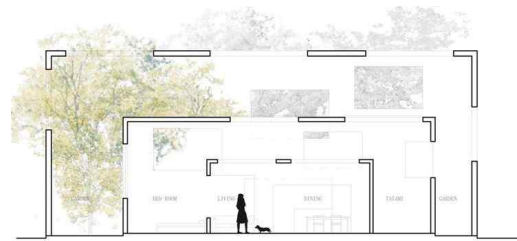
17) 소우 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132  
 18) 앞의 책, p.76  
 19) 앞의 책, pp.76-77  
 20) 앞의 책, p.132  
 21) 앞의 책, p.132

라고 설명한다. 사이와 경계의 모호함이 그의 건축 주제임을 다시 확인 시켜준다.



a) N하우스 외부 b) N하우스 내부

<그림 6> N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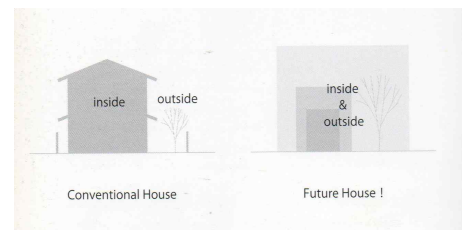


<그림 7> N하우스 다이어그램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난 도시와 주택, 내외부 관계 다이어그램을 보면 중첩을 통한 사이공간이 확장되어 확실한 위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 불분명한 상태가 되어 새로운 관계로 정리된다. 소우 후지모토는 모호함(Nebulous)으로 설명하면서 “집과 도시, 내외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대립(versus)이 아닌 공존(and)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경계(boundary)가 끝없는 점층의 관계(unlimited gradation)가 되고 거리와 상호작용(distance and interaction)이 모호하게(nebulous)된다.”<sup>22)</sup>고 저서에서 언급했다.



<그림 8>도시와 주택 관계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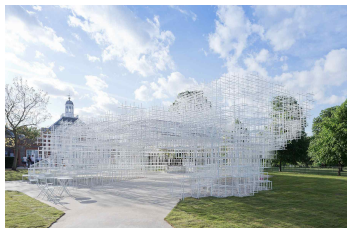
<그림 9> 내/외부 관계 다이어그램

22) 소우후지모토, Primitive Future, INAX, 2008, p.74



(3)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2000년 자하 하디드부터 시작된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은 3개월 동안 존속하는 임시 설치시설로써 유명건축가들이 초청받아 진행되어 왔는데, 2013년에는 소우 후지모토가 의뢰받아 설계하였다. 그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대조적인 격자형태 구조체를 불규칙적으로 쌓아 유기적인 구름같은 모습으로 주변과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내외부의 구분도 그 사이의 구분도 모호하며 구조물 자체가 가구이기도 하고 건축물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파이널 우든 하우스와 N하우스에 들어나는 가구와 구조의 구분이 사라지고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의 작품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2013 서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온

3.2. 베르나르 추미 건축의 사이공간(in between space) : 중재성

베르나르 추미는 스크린 플레이 연작(screen play series, 1978-1982)을 통해 공간과 행위, 프로그램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인간행위와 건축공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건축 작업을 해왔다. 90년대에 들어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 사이공간은 계획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탐구된다. 그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사이공간을 탐구하고자 하였고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사이공간이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된 행위들이 프로그램된 사이공간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상황(conditions)이 건축(공간)을 디자인하기 보단 건축(공간)이 상황을 디자인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건축(공간)이 대지, 프로그램, 사회적 상황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제시하였다.<sup>23)</sup>

$$[\text{행위(motion)} \times \text{사이공간(in-between)}]_{\text{프로그램}} = \text{이벤트}$$

23) 베르나르 추미, 행위의(에) 건축(Architecture In/of Motion), Nai, Publishers, 1997,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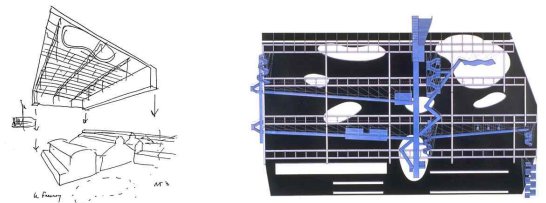
(1)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미술 스튜디오



a) 기존건물과 지붕의 관계      b) 기존 지붕과 새 지붕 사이공간

<그림 11>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 미술 스튜디오

베르나르 추미의 작품 중 사이공간 개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인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미술 스튜디오는 1991년 설계공모전을 통해 프랑스 트루쿠앵에 1997년에 완성되었다.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 극장, 공연장, 전시장, 작업공간이 포함된 복합 문화시설이다. 베르나르 추미는 기존 건물들을 덮는 거대한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새로운 지붕과 기존 지붕 사이공간을 창출하였다. 그는 이 관계를 ‘상자속의 상자’<sup>24)</sup>로 설명하면서 사이공간에 대해 “만약 새로운 지붕이 전체 프로젝트의 공통분모(거대한 우산)라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생성되는 우연한 이벤트를 강조할 방법을 찾았다.”<sup>25)</sup>고 설명하였다. 새로운 지붕아래 사이공간은 반외부 반내부의 공간으로 기존 박공지붕 사이를 지나다니는 캣워크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이벤트)과 공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르나르 추미의 입장에서선 프로그램 되지 않은 이 공간의 모호함에 주목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붕과 층(Floor)을 만드는 대신에 지붕과 지붕, 외부와 내부의 사이공간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이벤트 공간을 만들었다.



<그림 12>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 미술 스튜디오 스케치 및 다이어그램

(2) 컬럼비아 대학 러너학생센터

1999년 완성된 컬럼비아 대학 러너 학생센터는 뉴욕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캠퍼스 마스터 플랜과 19세기 풍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대학 캠퍼스 안에 계획한 학생센터로 주변의 건물들과 이질적이지 않게 어울리면서도 새로운 건축적 시

24) 앞의 책,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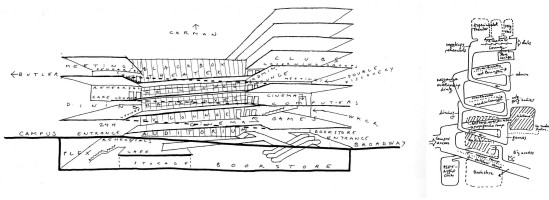
25) 앞의 책, p.26



a) 캠퍼스에서 본 모습      b) 사이공간

<그림 13> 컬럼비아 대학 러너 학생센터

도를 한 작품이다. 베르나르 추미가 이 프로젝트에 적용한 전략은 기존 마스터 플랜의 축과 전통적인 형태의 wings을 유지하고 그 사이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넣는 것이다. 두 전통적인 wings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새로운 램프에 의해 연결된다.<sup>26)</sup> 컬럼비아 대학의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보면 캠퍼스의 외곽에 건물을 배치하고 중앙에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 외부에서 보면 일련의 건물들이 캠퍼스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이 건물들은 19세기 풍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추미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도로 쪽에서 보면 전통적인 건물의 입면으로 인지되며 캠퍼스 안에서 보면 파격적인 형태의 유리건물이 전통적인 형태의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캠퍼스의 내외부의 사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는데,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 미술 스튜디오에서처럼 비 확정적인 프로그램 공간으로 램프를 선택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그러한 행위에 의해 다채로운 입면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림13>의 스케치를 보면 사이공간 전략이 잘 드러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된 두 매스의 각 층을 연결하는 램프 공간이 디자인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사이공간으로써 램프는 확정적이지 않은 이벤트의 공간임과 동시에 각 프로그램들을 수평적으로 연결 시켜주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또다른 사이공간을 만들어 아트리움을 만들고 있다. 확정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공간으로써 램프는 학교 캠퍼스 쪽에서 볼 때 밤과 낮의 서로다른 입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공간은 다이내믹한 빈 공간인데, 램프를 따라 학생들과 방문자들의 동작을 통해 움직여지고 정의된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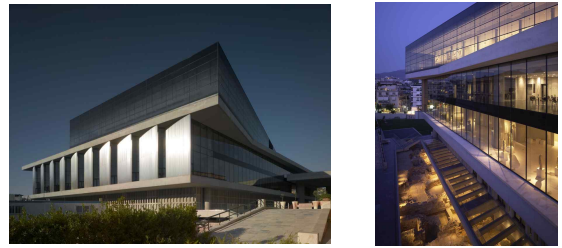


<그림 14> 러너 학생센터 스케치

26) <http://www.tschumi.com/projects/13/#>

27) <http://www.tschumi.com/projects/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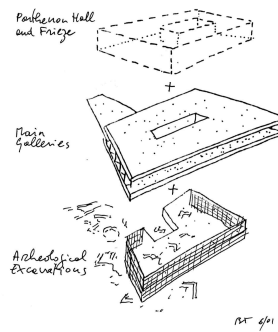
### (3)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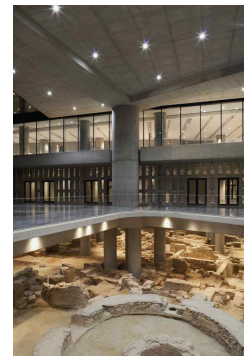
a)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전경      b) 유적위의 건물 모습

<그림 15>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2001년 공모전에 당선되고 2009년 완공된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 위에 만들어졌다. 필로티로 건물을 들어올려 유적지를 보존하면서 같은 레벨에 로비와 임시 전시공간이 배치되고, 갤러리들은 그 위에 계획되었다. 갤러리 레벨과 유적지 레벨 사이에 거대한 판을 삽입하고 그 판의 일부를 뚫어내어 건물의 내외부에서 유적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적지의 특성상 유적과 판 사이 공간을 직접 활용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대한 판의 삽입과 정교하게 계획되어 들려있는 공간을 통해 유적을 관람하게 만드는 접근은 르 프레스누아 국립 현대 미술 스튜디오에서 보여주었던 방법과 유사하다. 기존의 건축물 혹은 유적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위에 지붕 또는 판을 덮고 구멍을 뚫어 그 사이공간과 상부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다. 복잡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들어 올려 대지와 건축물이 적정한 사이공간을 갖게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a) 개념 스케치



b) 판과 유적 사이공간

<그림 16>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개념 스케치와 사이공간 이미지

## 4.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in between space) 개념 비교 분석

2장과 3장에서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에 대한 개념 및

적용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사이공간에 대한 두 건축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건축적 성향과 디자인 도구 및 구축 방법을 분석하고 사이공간 개념을 접근방식, 개념, 관심주제, 관계성, 방향성으로 분석 해 보았다.

#### 4.1. 건축적 성향과 디자인 도구 및 구축방법

3장에서 살펴본 두 건축가의 작품 비교를 다시 살펴보면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상당한 유사성도 보여주고 있다. 활동 지역과 시대가 다른 건축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약한건축’<sup>28)</sup>을 표방하는 소우 후지모토는 원초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의 건축을 추구하며 베르나르 추미는 유럽에 기반을 둔 건축가로서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뚜렷한 대비를 통해 건축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시대적인 차이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2000년대 이후 본격 활동하고 있는 소우 후지모토의 경우 프랙탈적 특성<sup>29)</sup>과 다이어그램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베르나르 추미는 80년대와 90년대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스케치를 도구로 사용한다. 건축의 구축방법에 있어서도 소우 후지모토는 일본 건축가답게 간결한 방식을 선호한다면 베르나르 추미는 하이테크적인 복잡한 구조물인 경우가 많았다.

#### 4.2. 개념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소우 후지모토에게 사이공간은 개념적이고 근본적인 건축 접근 방식이다. 그는 사이와 경계, 모호함 같은 주제를 본인의 건축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건축에 대한 신념이 표출된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는 여러 프로젝트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에 반해 베르나르 추미에게 사이공간은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 추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의 프로젝트에 사이공간 전략이 많이 적용 되었으며, 그것은 그 프로젝트들이 가진 역사 문화적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추미는 그러한 복잡한 프로젝트의 상황에 대한 전략적 해법으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형성하여 긴장감과 조화로우움을 만들고 있다.

#### 4.3. 모호한 개념과 분명한 개념

소우 후지모토에게 사이공간은 모호한 경계 같은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듯이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생성되는 가능성과 형태는 그의 탐구 주제인데 이는 동양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베르나르 추미에게 사이공간은 물리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공간이다. 공간과 이벤트 또는 프로그램의 관계를 건축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베르나르 추미에게 확정된 프로그램이 없는 사이공간이 새로운 탐구공간 이었고 그것은 모호한 프로그램이긴 하나 분명한 물리적 공간이었다. 추미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이벤트를 제시하며 이런 공간조차 정의하고 싶어 했다. 3장에서 살펴본 작품들을 보면 프로그램 되지 않은 사이공간들이 그 작품들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 4.4. 경계의 주제와 연결의 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의 모호함은 소우 후지모토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그에게 모호한 경계란 무엇과 무엇의 사이로 설명되며 그 사이의 무수한 가능성을 탐구 하는 것을 건축 모티브로 갖고 있다. 반면, 베르나르 추미에게 사이공간은 연결의 의미가 강한데 서로 대비되는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요소로서 사이공간이 정의된다. 즉, 사이공간은 두 공간 사이에 긴장을 주기도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하는 공간이다. 소우 후지모토에게 사이공간이 ‘AND’의 의미라면 베르나르 추미에겐 ‘VS’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추미의 이런 관점은 사이공간을 대립적 요소들 사이의 매개공간으로 인식하였던 알도 반 아이크와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관점을 계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4.5. 내외부, 행위, 자연, 역사, 도시의 관계

##### (1) 내부와 외부의 관계와 공간과 행위의 관계

관계성은 두 건축가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소우 후지모토는 내부와 외부, 주택과 도시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대비되어 보이는 두 개념을 공유와 모호함으로 설명하고있는데 그 관계를 정의하려 하지 않고 모호함 그 자체를 건축으로 받아들인다. 베르나르 추미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공간과 행위(event or program)는 사이공간에서도 주요한 관심이며 기능에 따른 행위가 부여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이공간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곤 한다. 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간의 다양한 행위가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역동적인 입면과 다양한 이벤트공간으로서)가 주요한 사이공간 개념이다. 소우 후지모토에게 대립적인 요소들을 매개하고 중화시키는 관계로써 사이공간이 중요하다면, 베르나르 추미에게는 계획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행위에 의해 대립적 요소들간의 긴장을 강조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이 사이공간의 중요한 의의인 것이다.

##### (2) 자연과 도시의 관계와 역사와 도시의 관계

소우 후지모토는 본인의 출생지인 홋카이도의 자연과 도쿄 도심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며 자연과

28) 소우 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28  
 29) 장용순, 소우후지모토 건축의 프랙탈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30 n2, 2014, p.182

숲에 대한 관심을 항상 이야기 해왔다. 숲, 구름, 동굴, 산<sup>30</sup>등이 그가 즐겨 사용하는 자연적 모티브인데 실제 건축의 장소인 도시의 환경과 자연적 모티브의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를 건축으로 접근한다. 베르나르 추미는 도시 역사와 새로운 건축사이의 대비와 조화에 관심을 두고, 앞서 살펴본 르 프레스누아 국립현대미술 스튜디오의 경우처럼 오래된 건축과 새로운 건축의 극단적 대비와 그 사이공간의 긴장감을 추구하였다. 컬럼비아대학 러너 학생센터의 경우 19세기 건축물들과의 조화 속에 하이테크적인 현대건축의 극단의 대비를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작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유적지와 건물의 수평적 관계에 적절한 사이공간을 삽입하여 도시의 역사와 새로운 건축물이 공존하도록 하였다. 알도 반 아이크의 부분과 전체, 내부와 외부, 단함과 열림, 중심과 탈중심 등과 같은 대립항들의 동시적 공존을 통해, 주제적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이면서도 실체적인 장소개념으로써 사이공간이 베르나르 추미에게는 근대도시 환경과 현대건축의 대립을 매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소우 후지모토에게는 자연과 도시환경의 경계를 없애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 4.6.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사이공간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될 때 생성되는데 두 건축가 모두 수평적 접근과 수직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에는 차이가 있는데 수평방향에 있어 소우 후지모토의 경우 수평적인 레이어(층)를 허물고 그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면 베르나르 추미의 경우 기존 레이어(지붕 또는 바닥) 위에 또 다른 레이어를 덮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높이의 차가 있는 층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수직방향에 있어 소우 후지모토는 도시와 주택, 즉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또 다른 중첩 공간을 삽입하여 관계를 만든다면 베르나르 추미의 경우 도시의 역사와 주변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 시간에 따른 배치를 통해 조화와 대립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표 1> 두 건축가의 개념 비교분석 요약

구분		소우 후지모토	베르나르 추미
건축적	성향	약한건축	대비적 존재감
	도구	프랙탈/다이어그램	이미지/스케치
	구축	간결성	복잡성
사이공간에 대한	접근	개념적	전략적
	개념	모호함	분명함
	주제	경계	연결
	관계	내부와 외부	공간과 행위
		자연과 도시	역사와 도시
방향	수평/수직	수평/수직	

30) 장용순, 소우후지모토 건축의 프랙탈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30 n2, 2014, pp.181-182

## 5. 결론

지금까지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에 대한 개념 및 전략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알아보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이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계, 연결, 관계 등 현대건축의 여러 개념들이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

두 건축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이러한 개념들과 사이공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축되고 설명되는지 알아보았다. 알도 반 아이크와 헤르만 헤르츠 버거에게 대립적 요소들 사이의 매개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사이공간 개념은 소우 후지모토에게는 모호함을 내포한 매개공간 개념으로 인식되고 베르나르 추미는 대립적 요소의 중재 또는 매개의 의미를 지닌다. 두 건축가 모두에게 사이공간은 매개공간임은 공통적이지만, 소우 후지모토는 매개공간 자체의 가능성에 주목한 반면 베르나르 추미는 대립적인 외부 환경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활동기간이 짧은 소우 후지모토의 경우 상당히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그에반해 오랜 시간 활동해온 베르나르 추미는 시기에 따라 그 주제가 다양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 개념을 살펴 보면서 개념 또는 전략에서 물리적인 공간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굳어지지 않고 명쾌하다는 점이 놀라운데 건축적 성향과 디자인도구 및 선호하는 구축방법과 사이공간에 대한 접근방식, 개념, 관심주제, 관계성, 방향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두 건축가의 사이공간에 대한 개념 및 전략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을 때, 건축적 현상에 대한 건축가들의 사고, 해석 및 적용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보단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소우후지모토,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2. 소우후지모토, 원시적 미래(Primitive Future), INAX, 2008
3. Manuel Gausa, Vincent Guallart, Willy Muller, Federico Soriano, Fernando Porras, Jose Morales,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4. Tshumi, Bernard, Le Fresnoy Architecture In/Between, the Monacelli Press, 1999
5. Tshumi, Bernard, Architecture In/Out Motion, Nai Publishers, 1997
6. Tshumi, Bernard,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The MIT Press, 1996
7. 헤르만 헤르츠버거,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2009
8. 김명화,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9. 오광석, 안용희, 전영훈,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17 n1, 2008
10. 이진화, 김성욱, 전유창,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의 작품에 나타난 경계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제33권 제1호, 2013



11. 장용순, 소우 후지모토 건축의 프랙탈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14
12. 권경민, 김종진, 램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16 n6, 2007
13. 송정화, 임채진, 세즈마 카즈요의 '21세기 미술관'에 표현된 공간형식과 프로그램,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13, 2005
14. <http://www.tschumi.com/>
15. <http://www.sou-fujimoto.net/>

[논문접수 : 2015. 10. 31]

[1차 심사 : 2015. 11. 18]

[2차 심사 : 2015. 11. 24]

[3차 심사 : 2015. 11. 27]

[게재확정 : 2015. 12. 11]